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광주 24/32℃ 목포 23/29℃ 여수 23/29℃

光州日報

인생60파워 정기예금 금리 5.32%
DAYOU 대유와 함께 빛이나는 스마트저축은행
www.smartbank.co.kr 대표전화 1577-3800

단기 4344년 (음력 8월 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51호 1판 2011년 8월 31일 수요일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의 프레스 오픈(9월1일)과 개막식(2일)을 앞두고 30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시장 설치 마무리
내일 프레스 오픈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시장 설치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등 행사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7·12·13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9월 1일 국내외 언론과 디자인 전문가들에게 전시장을 먼저 공개하는 프레스 오픈과 어번폴리(Urban Folly) 준공식을 시작으로 52일간의 대향연에 돌입한다.

주전시장인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44여개국 129명의 작가와 74개 기업이 선보이는 141점이 전시돼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해 직접 작품 설명을 하는 어번폴리 준공식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국악관현악단과 합창단 등이 펼치는 다양한 공연과 종이비행기 날리기, 소원 리본달기 등 이색 부대 행사도 곁들여 진다.

시민들을 위한 참여 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나도 디자이너'의 작품이 금남로 4가역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됐고, 전시기간 비엔날레 전시관 일대에서는 흥겨운 공연도 이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통일 류우익·문화 최광식 보건 임채민·여성 김금래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통일정책특보 현인택

류우익

최광식

임채민

김금래

임종룡

현인택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통일부 장관에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을, 국무총리실장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프로필 3면〉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신임 장관 청문회 이후 당으로 복귀하고 특임장관은 공석으로 비워두기로 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통일정책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됐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개각과 관련, "국정 후반기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물들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류우익 내정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 주중국대사 등을 거쳤다.

최광식 내정자는 서울 태생으로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 교수,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문화재청장으로 재직했다.

임채민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1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지냈으며 실물경제와 정책조정 분야에서 뛰어난 추진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금래 내정자는 18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며 한나라당 여성국장으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에서 김윤옥 여사의 부속실장을 지냈다.

임종룡 내정자는 보성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는 등 경제 전반은 물론 부처간 이견 조정 등에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F1 경주장 전남도 인수 정부가 차단

전남도에 손실 보전 조례 제정 요구
경주장 활용 수익사업 등 차질일 듯

전남도가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F1(포뮬러원) 경주장을 사들이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전남개발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전남도의 재정 지원을 근거로 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서다. 당장, 경주장 인수 절차가 늦어지면서 F1 경주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30일 전남도와 국무총리실,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재로 29일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자리에서, 전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전남도가 전남개발공사의 경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을 약속하는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의 경주장 인수 조건으로 PF 대출금(1980억)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720억원(연간 120억)을 지원키로 했었다. 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대회 운영기업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가 경주장 건설을 위해 끌어들인 PF 대출금을 떠안으면 전남도는 이에 따른 대출금 이자를 2016년까지 갚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자 지원과 별도로 전남개발공사가 향후 경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전남도가 지원한다고 약속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공사채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는 9월까지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 F1경주장 매매 계약과 자산등기를 마치기로 한 전남도 계획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조례 제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안 통과를 약속하는 전남도의회 의원 과반수 동의서 ▲10월까지 조례안을 제정하겠다는 도의회 지도부의 약속 ▲전남도의 재정지원 확약서 등이 제출되면 공사채 발행 승인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이날 회의에서 추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만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데다, 향후 수익성이 불투명한 탓에 F1 대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행안부 요구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전남도 입장에서도 추가 재정 지원을 약속하기가 버거운 형편이다.

카보 주주사인 SK가 '시공사 주식매도권'을 행사, F1 대회 사업자에서 발을 뺀 뒤에도 다른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 전남개발공사를 끌어들여 '만만한' 공기업에게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공사채 발행 시기가 늦어져 경주장 인수 절차가 늦어질 경우 경주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공사채를 발행, 양도·양수를 위한 토지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던 전남도 계획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이 이뤄져 F1 경주장 인수 절차를 시급히 마무리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 접수기간 : 9월 9일(금) 까지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